민족문화연구 제86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6호에는 기획특집 논문 5편, 일반 논문 10편을 포함하여 총 15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분야별로 문학 1편, 어학 1편, 철학 4편, 역사학 6편, 사회학 1편, 종교학 1편, 의상학 1편이 수록되었는데, 특히 다양한 전공의 논문 분포와 함께 사회 현상에 대한 논의와 문화 담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획특집으로는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이 수록되었는데, 기획특집 논문 5편에 대한 소개는 '특집의 말'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숙인은 "충절과 정절의 정치학—조선후기 절(節) 담론을 중심으로—"에서 병자호란 이후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충절과 정절의 담론이 동일한 심리 현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규명했다. 특히 전란 당시 강화도에서 사고사로 보고되었던 김상용의 죽음을 충절(忠節)로 변모시켰던 사람들이 환향녀를 정절(貞節)을 잃은 부녀로 규정하는 논리를 제시한 세력이라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조선후기 충절담론이 실제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작동하는지를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조선후기 충절과 정절의 담론이 사회통합으로 기제로 활용되었다는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서 그러한 담론을 통한 죽음의 의미화가 후손의 정치경제적 이익 확보와 여성에 대한 젠더 규정에 미치는 정치적 의미를 재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의 "조선 후기 『忠勳府謄錄』의 자료적 검토"는 공신을 우대하기 위해 편찬된 『충훈부등록』의 구성과 체제 및 내용을 상세하게 고찰한 연구로서, 『충훈부등록』이 원칙적으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특정 주제나 사건별로 편차되었음을 밝히는 한편, 기록된 내용을 공신과 그 자손의 자격 유지 및 변동, 공신과 그 자손의 우대, 왕실 의례, 충훈부 운영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이 연구는 공신의 우대 관련 업무의 기초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공신 관련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도경의 "『오옥기담(五玉奇談)』의 애정전기소설 양식적 규정과 20세기 초

애정전기소설사의 향방"은 『오옥기담』의 〈금잠가연〉, 〈변씨열행〉, 〈선분기담〉, 〈취란방기〉, 〈청루의녀〉 등이 18-19세기까지 지속된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전통 속에서 20세기 초 개화기의 국가적 이슈에 서사적으로 대응한 서사적 전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적 보편성과 『오옥기담』의 독자적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한편, 『오옥기담』의 편집의도를 20세기 초의 시대의식과 사회적 배경과 연관하여 시대적 의미를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문학적 양식의 전통 계승과 혁신적 변화의 문제를 새롭게 음미하는 데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유나의 "죄악과의 전쟁—초기 한국 구세군을 중심으로—"는 한국 초기 구세군의 금주 담론을 구세군의 종교사적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로서, 영국 구세군에서 금주가 주요 규율이 된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구세군에서 그러한 규율이 전개되는 양상을 『구세군신문』 금주호를 통해 분석했다. 특히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흐름 가운데 구세군을 파악하는 연구들과는 달리, 절대악의 상징이자 결과인 술을 금지하는 금주가 영국 구세군에서 강력한 종교적 규율로 정립된 뒤 한국 구세군에 도입되면서 한국의 개신교 금주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했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자선과 봉사로 알려진 구세군이 금주를 통해 악을 무찌르는 강한 군대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새롭게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지원의 "한국학의 근대성 고찰"은 한국학을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로서, 19세기 이래 서양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서 타자화된 동아시아 근대 문화정체성과 자국학의 근대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학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1910년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식민지적 강제와 규정을 받는 글로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식민과 반식민이 경쟁하는 조산학의 근대성을 다양한 기표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한국학이 전근대적 전통문화를 획일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넘어서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근대적 주체들이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한국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부의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은 6・25전쟁이 총력전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전이라는 관점에서 후방의 전쟁수행자로서의 역할후방의 시민들을 학살, 점령, 동원과 착취의 희생양으로 설명했던 기존 사회학적 접근들과는 달리, 후방에서 전쟁수행의 주체가 되도록 의식과 생활방식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생활동원’의 양상과 의미를 설득력 있게 규명했다. 이 연구는 1951년 제정된 「전시생활개선법」이 전시 국책 수행에 적합한 국민 생활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동원’이었으나,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통제하는 생활동원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생활동원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협조, 상부주도식 강제가 아닌 상부주도식 실천, 각종 조치들의 제도적 완결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김선호의 “국가건설기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고등교육을 중심으로—”는 해방 이후 북한이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서 진행했던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양상, 북한 역사교육체계의 구성과 내용 분석, 북한 역사교육의 원칙과 이념 등을 탐색한 연구다. 특히 일제교육 잔재의 청산,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인식을 지닌 민족문화 창조의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1947년부터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이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교육을 통한 국가 건설의 근로자 형성을 모색하는 구상을 설명하고, 애국주의사상 교육을 통해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 흐름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해방 이후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국가건설의 관계를 탐색하는 향후 학문적 논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호의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담론과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은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족과 가족주의 담론에 은폐된 식민지 근대성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그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 모순의 관계를 성찰하고 현대적 가족 담론의 전통성과 식민성을 검토하면서 조선의 가문 전통을 해체하고 일본식 가족주의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설명했다. 이 연구는 향후 유교적 가족감성에 근거한 유연한 가족 구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망하는 가족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의미있는 공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대엽의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협력공동체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문명사적 탐색—”은 협력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기원에 대한 문명사적 탐색이다. 그는 협력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문명의 순환이 집중, 분산, 협력의 서사로 전개되며, 협력문명이 기존 문명이 몰락한 뒤 새 문명이 등장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니라 기존 문명이 왜곡, 변형, 약화된 채 새 문명이 등장하는 추가적이고 누적적인 전개임을 밝혔다. 또한 협력문명이 작업협력, 종교협력, 이념협력으로 전개되는 문명사적 맥락과 특징을 설명한 토대 위에서 향후 제4의 가치협력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생활공공성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전망으로 유용하다.

김혜령의 “SNS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양상—SNS의 새로운 은유 표현을 중심으로—”는 SNS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은유 표현의 양상을 정리하고 은유 표현의 영역과 생성 및 사용 경향을 분석한 연구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SNS의 은유 표현이 언중의 사회적 관심과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더불어 은유적 개념화가 확장되는 양상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폭발적 관심의 대상인 SNS 속 언어 사용 습관에 대한 시의적절한 학문적 접근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대영은 『기인한상량』에 대한 해제에서 책의 내용과 함께 일본 동양문고본이 지닌 가치와 의의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기인한상량』은 19세기 초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에 대한 인식의 성격과 수준을 보여주는데, 『삼국사기』 지리지부터 조선 초기 지리지 제작 상황을 소개하고 지리지에 대한 저자의 평론을 담는 한편, 서울 지식인 주도의 지리지 제작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고, 지리지 제작의 이유와 당위성은 물론 지리지 제작시 각 항목의 체제와 서술방식과 항목별 의의 등을 설명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지리지나 읍지에 대한 소개는 있었으나, 지리지에 대한 독자적 연구나 개인적 저술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편이므로, 『기인한상량』은 향후 전통적 역사지리와 지리지 연구 및 조선 후기 지리지 인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족문화연구』 제86호에는 조선시대 가례 연구와 관련된 기획특집 논문과 함께 특히 사회 현상과 문화 담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다양한 전공자들에 의해 다채롭게 제기되었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이 향후 한국학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족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다채롭게 접근하는 풍성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